정보

개요
곡명: Éclat/Multiples for twenty-five instruments
작곡가: Pierre Boulez (1925–2016)
장르: 기악 앙상블 작품
성립: Éclat 1964–1965년, Multiples 확장 1966–1970년
편성: 25악기 앙상블
초연: Éclat 1965년 3월 26일 UCLA,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단원들, Boulez 지휘; 확장판 Éclat/Multiples 1970년 10월 21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 BBC Symphony Orchestra, Boulez 지휘
작품 범위: 두 개의 연결된 카이에 (cahier)로 공개된 악보와, 원래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상된 더 큰 프로젝트의 관계
IMSLP: 확인된 IMSLP 항목 없음

Wikipedia: Éclat/Multiples

Pierre Boulez의 Éclat/Multiples는 선율을 길게 전개하는 대신, 음이 부딪힌 뒤 남는 잔향과 그 잔향을
기다리는 시간을 앙상블의 골격으로 삼는다. 작품은 1964–1965년에 쓰인 Éclat과 1966–1970년에 확장된 Multiples라는 두 카이에로 공개되며, 원래 구상된 다섯 개의 section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공개판으로 남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곡을 들을 때에는 25분 안팎으로 연주되는 공개판을 닫힌 서사로 좇기보다, 짧은 음향 사건과 지속되는 배경이 지휘자의 제한된 선택 속에서 배열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편이 정확하다.

두 카이에가 만든 작품의 시간

Boulez는 먼저 Éclat을 15악기를 위한 약 8분의 작품으로 썼다. 여기서 음악의 단위는 전통적인 주제나
악구보다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음향 사건에 가깝다. 1966년부터는 이 재료를 더 큰 편성으로 넓히는 Multiples 작업이 이어졌고, 공식 카탈로그와 IRCAM은 확장판의 작업 기간을 1966–1970년으로 기록한다. 제목 사이의 사선은 두 작품을 억지로 하나의 악장으로 붙이는 기호가 아니라, 선행 카이에와 그 확장 카이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공개된 악보에는 첫 번째 카이에인 Premier cahier, Éclat과 두 번째 카이에인 Deuxième cahier, Multiples 가 포함된다. Boulez의 구상은 여기에 세 개의 section을 더하는 방향으로 뻗어 있었지만, 현재 공연되는
악보는 그 전체 설계의 일부다. 이 범위를 먼저 구분하면 Éclat 단독 연주와 Éclat/Multiples 연주의 길이와
음향 규모가 왜 다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요 시간

IRCAM Pierre Boulez *Éclat/Multiples* 25 . *Éclat* 8 , Philharmonie de Paris 30 . 20–25 .

Guardian 2025 28 4 25 .

G , , C , , , , , , 10 , . , , , , , ,

솔로군과 동반군

잔향이 긴 악기들이 만든 공명은 플루트, 잉글리시 호른, 트럼펫, 트롬본, 비올라, 첼로의 지속적인 음색과 만난다. 동반군은 화음을 단순하게 깔아 두기보다, 솔로군의 사건이 사라지는 동안 음향의 바닥을 유지한다. 그러면 짧은 소리 하나가 고립되지 않고, 이미 남아 있는 지속음의 표면에서 반사된 뒤 다음 소리로 넘어간다.

이 관계는 고정된 역할표가 아니다. 솔로군의 악기가 길게 울려 배경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지속음을 맡던
악기가 짧은 어택으로 전면에 나타날 수도 있다. 작품을 들을 때 특정 악기의 음량만 좇기보다, 방금 끝난
소리가 어느 악기의 지속음에 기대고 있는지를 들으면 Boulez가 만든 공간적 연결이 선명해진다 .

번호화된 선택

악보의 일부 구간에는 번호가 붙은 개입들이 있고, 지휘자는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어느 개입부터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어지는 템포와 강도의 선택도 악보가 허용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 이 절차는 매 공연의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음고와 악기 관계를 현장에서 새로 발명하는 자유 즉흥은 아니다.

지휘자는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넘어, 이미 기보된 음향 사건들이 만나는 순서를 조직하는 사람이다. 어떤
개입을 먼저 들려주느냐에 따라 잔향이 겹치는 방식이 바뀌고, 같은 재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IRCAM이 이 작품을 때때로 “지휘자와 소규모 앙상블을 위한 협주곡 ”에 비유하는 이유도, 해석의
결정이 실제 시간감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Multiples, 관계를 증식하는 확장
Multiples는 Éclat의 소리를 더 크게 복제하는 후속부가 아니다. 확장된 비올라군과 바셋 호른, 늘어난 악기 수가 선행 카이에의 공명 관계를 새로운 비율로 배치한다. 짧은 금속성 어택은 더 넓은 공간에서 되돌아오고 , 지속음은 이전보다 오래 남아 다음 사건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서 개별 악기의 반짝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하나의 앙상블 풍경을 이룬다.

Universal Edition 계열 해설은 두 카이에의 진행을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에 비유한다. 이 비유를 실제 회화의 장면이나 특정 인용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하나의 음향 형태가 다른 편성이나 다른 지속 시간 속에서 되돌아오며 , 처음의 모습과 같지 않은 반사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작품 해설은 진행될수록 동반군의 중요성이 커지는 대조도 언급한다. Multiples의 후반부를 들을 때에는 앞에 나온 짧은 사건만 찾기보다, 그 사건을 오래 붙잡는 비올라와 첼로, 관악기의 지속성이 어떻게 전면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볼 만하다. 이 변화가 선율적 클라이맥스로 한 번에 폭발하는 대신, 공명의 무게 중심을 서서히 옮기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확장부의 성격을 결정한다.

시간의 방향을 고정하지 않는 형식

IRCAM은 번호화된 선택과 템포와 강도 조절이 음악 시간을 유연하고 우연적인 것으로 만들며, 순간에 따라 진행 방향이 잠시 비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연성은 작곡가가 모든 결정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주자는 악보에 적힌 사건과 관계를 지키면서, 허용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사건 사이의 간격과 잔향의 중첩이 달라져 서로 다른 시간감을 만든다.

이 시간 개념을 동양 음악의 영향과 연결하는 설명도 IRCAM 프로그램 노트에 나온다. 구체적인 민족 음악이나 음계를 작품 안에 대응시키기보다 , 시간의 방향을 한 줄로 밀어붙이지 않고 순간의 지속과 소멸을 듣게 하는 미학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편이 알맞다. Boulez의 음악은 어느 한 전통을 모사하기보다 , 지휘자의 선택과 공명의 물리적 시간이 만나는 지점을 실험한다.

초연과 출판의 경로

Éclat 단독 초연은 1965년 3월 26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열렸다. 연주자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단원들이었고 , Boulez가 지휘했다. 이 초연은 15악기 카이에가 독립된 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다 .

확장된 Éclat/Multiples는 1970년 10월 21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BBC Symphony Orchestra와 Boulez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 두 초연 사이에는 편성과 작업 기간의 변화가 놓여 있다. 같은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두 판본은 사용하는 공간과 악기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

출판 정보

Universal Edition은 두 형태를 구별해 출판했다. Éclat/Multiples의 학습 총보는 UE 32746, 더 큰 판형의 악보는 UE 18296으로 식별되며, 선행 Éclat의 인쇄판은 UE 17746이다. 판본 번호를 나누어 보는 것은 8 분짜리 카이에와 25분짜리 공개판을 하나의 악보로 혼동하지 않게 해 준다.

공개판과 미완성 프로젝트의 구분

Boulez의 계획에는 다섯 section으로 이어지는 더 큰 작품 구상이 있었지만, 현재 공연되고 출판된 악보는 그중 두 카이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개판을 미완성 스케치라고 낮춰 부를 필요도 없고, 남아 있지 않은 세 section을 완성된 악장처럼 설명할 수도 없다. 실제로 연주되는 텍스트의 범위와 작곡가가 처음 계획한 전체 범위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25년 Guardian 비평은 한 음반 소개에서 작품이 1981년에 “completed”되었다는 서술과 더 긴 확장 스케치의 가능성을 함께 전한다. 이 문장은 해당 비평이 제시한 음반 설명으로 한정해 읽어야 하며, Pierre Boulez 공식 카탈로그와 IRCAM이 공개판을 다섯 section 프로젝트의 일부로 설명하는 기록과 나란히 놓아야 한다. 서로 다른 기록을 섞어 하나의 확정 연도로 만들기보다 , 어떤 자료가 어떤 판본과 범위를 말하는지
밝히는 편이 작품의 전승을 잘 보여 준다.

주요 레코딩과 수용

Pierre Boulez 공식 음반 목록에는 Boulez가 Ensemble intercontemporain을 지휘한 CBS의 1983년 Éclat/Multiples 녹음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작곡가 자신의 지휘 아래 확장판이 음반으로 정착한 사례를 보여 준다. 세부 판본이나 악보 수정 이력을 이 목록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지만, 1970년 초연 이후 작품이
지속적으로 연주와 녹음되어 왔다는 전승의 한 축이 된다.

Andrew Clements의 2025년 Guardian 비평은 Collegium Novum Zürich와 Ensemble Contrechamps, Michael Wendeberg가 참여한 Bastille Musique 음반을 다룬다. 비평에 따르면 음반은 약 28분의 공개판에 이전에 녹음되지 않은 4분을 더해 들려준다. 이 설명은 특정 녹음이 공개 악보의 시간과 미녹음 자료를 어떻게 조합했는지 알려 주며, Éclat/Multiples가 고정된 한 가지 길이로만 유통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들을 때 확인할 구조

첫째, 악기가 소리를 내는 순간보다 그 소리가 사라지는 속도를 함께 듣는다. 피아노, 비브라폰, 벨, 침발롬의 잔향은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되고, 만돌린과 기타의 짧은 발음은 그 배경에 작은 균열을 낸다.

둘째, 지휘자의 선택이 개입의 순서와 템포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핀다. 이 선택은 악보 밖에서 재료를 추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보된 사건 사이의 경로를 고르는 일이다. 같은 부분이 공연마다 다른 방향성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Multiples로 갈수록 비올라와 첼로, 지속적인 관악기의 비중이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한다. 처음의 번쩍임이 사라지는 대신, 그 흔적을 오래 유지하는 음향이 앞으로 이동한다. 확장판의 형식은 한 번의 절정보다 공명과 침묵의 비율을 바꾸며 드러난다.

주요 자료

Pierre Boulez 공식 작품 카탈로그, Éclat/Multiples for twenty-five instruments

IRCAM, Éclat/Multiples
IRCAM, Éclat

Universal Edition, Éclat/Multiples

London Symphony Orchestra, Boulez chronology

Philharmonie de Paris, Boulez 자료

Pierre Boulez 공식 음반 목록, 1983년 CBS 녹음

Andrew Clements, The Guardian, 2025년 음반 비평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0:43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0:43 UTC by 안준영